제73차 국민경제대책회의
(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)

〈10.14(목) 석간(인터넷 10.14(목) 10:30이후)〉

청년 *내 일** 만들기

< 제1차 프로젝트 >

* My Work for Tomorrow

2010. 10. 14

관 계 부 처 합 동

차 례

I. 청년고용 실태와 원인 ····· 1

II. 지금까지 대책의 평가 ····· 7

III. 청년 *내 일* 만들기 추진계획 ····· 8

1. 청년 일자리 71,000개+를 만들겠습니다 ····· 9

[1]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····· 9

[2]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창원 ····· 11

[3] 안전·특허·생활서비스 확대 ····· 14

[4]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····· 14

[5] 해외취업 활성화 ····· 17

[6]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·· 18

2.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·· 19

Ⅳ. 추진일정 ····· 23

<붙임1> 「청년 *내 일* 만들기」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

<붙임2> 신규 일자리 창출 세부일정

Ⅰ. 청년고용 실태와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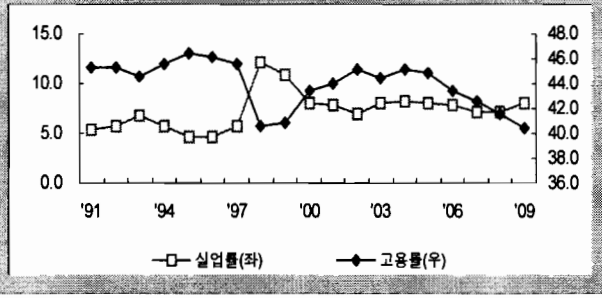
1. 청년고용 실태

□ **(고용 동향)**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**고용여건은 점차 개선**되어 '10.8월 현재 실업률이 3.3%로 감소

○ **청년실업률**은 10.0%('10.2월)에서 7.0%(10.8월)로 개선되었으나 **고용률은 감소추세 지속**

- 취업준비자가 44만명에 이르는 등 청년층 체감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

< 청년 실업률·고용률 추세 >



□ **(국제 비교) 청년실업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나,** 재학생 등 비경활인구 비중이 높아 **고용률은 OECD 중위권**

< 청년 실업률·고용률 국제비교(15~24세, '09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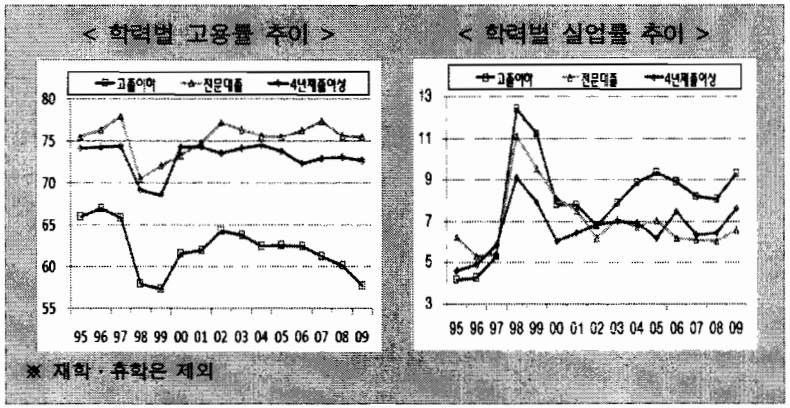
구 분	한국	프랑스	독일	일본	영국	미국	스페인	OECD
실업률	8.1	22.8	11.0	9.1	18.9	17.6	37.9	16.7
고용률	40.5	31.1	46.6	39.9	52.1	46.9	30.8	40.1

* 25~29세('09년): 실업률 - 한국 7.1%, OECD 10.4%, 고용률 - 한국 67.5%, OECD 71.8%
* 한국은 군입대 등을 고려하여 15~29세를 기준

□ **(학력별 특징) 대학이상 학력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2/3를 상회**

* 학력별 청년 실업자('10.8월): 29.5만명(전체), 8.9만명(고졸이하), 20.6만명(대학이상)

○ 다만, 고용률과 실업률 측면에서는 **고졸 이하 청년층이 가장 열악**



○ 고졸자는 대졸자에 비해 취업소요기간*이 길고, 임시·일용직 비중이 높은 편

* 취업소요기간: 고졸 16개월, 전문대졸 7개월, 대졸 8개월

* 청년취업자중 임시·일용직 비중 (%, '09): (고졸이하) 49.5, (대학생·대졸자) 26.7

○ 대졸자는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준비하는 경향

* 취업이 어려운 경우 눈높이를 낮춰 취업(22.8%), 창업(2.3%)을 택하기보다 구직활동 지속(37.8%), 자격증 취득·기술 습득(12.8%), 각종 시험 준비(11.5%) 등을 선택('10.8월 한국고용정보원)

2. 청년고용문제의 원인

<공급 측면>

□ **(급격한 고학력화)** '90년 33.2%에서 '09년 81.9%로 급상승해 전문대졸·대졸 청년층은 초과공급 상태

* 높은 교육열, 학벌 중시 풍토, 설립준칙주의 전환('97년) 이후 대학 난립, 학력간 과도한 임금격차 등으로 일단 대학은 졸업해야 기본이라는 인식 공고화
* 대졸 이상 근로자 임금수준(고졸=100): 한국 177, OECD 164('10. OEC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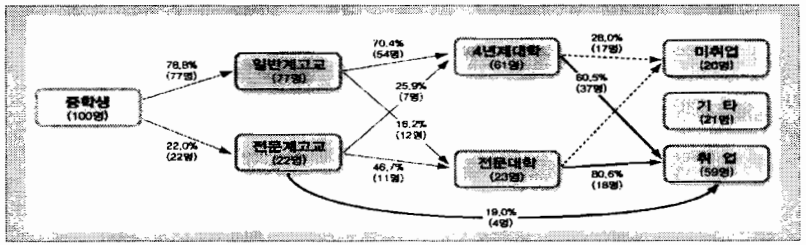
○ 고졸 이하, 대학원졸 이상 청년층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전망

< 청년층 인력수급전망(~2018) >

◇ 생산가능인구 감소(1,154천명), 취업자 감소(763천명), 비경제활동인구 감소(329천명) ⇒ **고용률 하락(41.6%→38.3%), 전문대졸·대졸자 연 45천명 공급과잉**

□ **(획일적 입직 경로)** 대학까지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획일적 입직경로가 일반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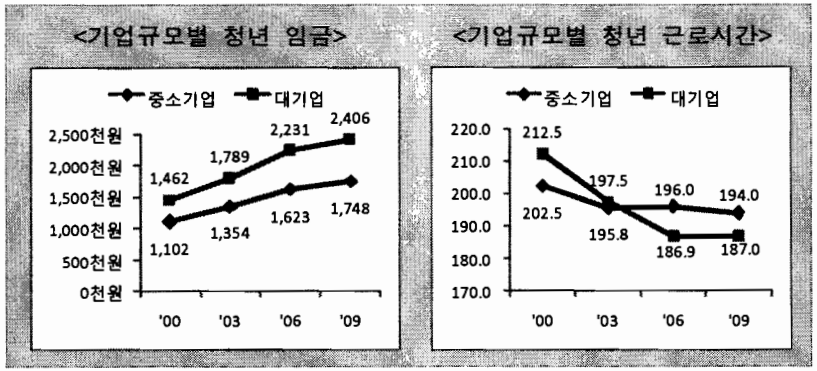
<진로경로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 규모('08년, 교육통계연보 기준)>



□ **(공급자 중심의 교과과정)** 산업계 수요와 동떨어진 대학 교과과정 운영

* 대학 전공지식이 현재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는 49.1%에 불과 ('07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)

□ **(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)** 대·중소기업 격차 확대가 주된 원인이며, 이는 근로조건 격차, 미래비전의 불확실성, '명성의 외부효과'(reputational externalities) 등에 기인



○ 근로자 직업훈련 참여율이 대기업은 115.1%, 중소기업은 27.2%('09년 기준)으로 능력개발 기회도 격차

○ 산업단지는 제조업 고용의 약 40%('08년)를 담당하는 중요한 일자리 창출원이나 낡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취업 기피

* 반월단지는 지원시설구역 용지가 2.5%뿐인데, 그나마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간이 컨테이너 등 50여개에 이르는 불법 판매시설(식당)이 난립
* 남동단지 입주기업의 60%는 근로자 기숙사가 필요하나, 기숙사 보유율은 16%에 불과

○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근로자로 이동이 어렵고, 중소기업이 중견기업·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도 극소수

* 첫 일자리가 30인 미만 중소기업일 경우 계속 중소기업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음('10. 한국고용정보원)
* '09.4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 48개중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기업은 2개소(웅진, 세아)에 불과

<수요 측면>

□ **(고용창출력 저하)** 산업 고도화, 글로벌 경쟁 심화, 인력절감형 투자 등의 영향으로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 약화

* 취업유발계수(10억원 투자로 늘어나는 일자리수): '98년 24.7 → '03년 16.9 → '08년 12.1로 급감

○ 연평균 일자리 창출 규모가 둔화('91~'97년 연평균 447천명 증가 → '01~'08년 연평균 303천명 증가)되어 취업경쟁 격화

○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연령구조도 고령화 추세

*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 청년층 비중이 '04년 30.6% → '09년 25.9%로 감소

* 특히 공공기관은 선진화 개혁 등의 영향으로 피보험자중 청년층 비중(13.4%)이 300인 이상 민간기업(27.9%)보다 낮은 실정

□ **(경력자 채용 선호)** 설상가상으로 신규 직원보다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심화

* 3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보험 신규취득자 중 청년층 비중은 '04년 61.5% → '09년 45.6%로 감소

□ **(청년창업 감소)**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층은 모험·도전보다는 안정적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

* 벤처 창업자 중 20-30대 비중(%): ('02)56.2 → ('04)47.6 → ('06)15.1 → ('08)14.2 → ('09)11.8

○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창조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·시설도 미흡

참고자료 청년취업실태 조사결과

□ **(청년고용문제의 원인)** 구직자, 취업지원관계자, 기업체 인사담당자 모두 **'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'**이라고 지적

- 구직자들은 **'좋은 일자리 부족'**도 원인으로 인식(청년고용 실태분석 연구, '10.8)

□ **(눈높이 차이)** 대졸 구직자 희망임금은 2,727만원, 대졸자 평균 임금은 2,256만원으로 471만원 격차('10년 대학생 직업 및 취업인식 조사, 한국고용정보원)

□ **(취업준비)** 영어회화, 학점, 자격증 등을 취업의 기본조건으로 인식, 월 평균 33만원을 지출('10년 대학생 직업 및 취업인식조사, 한국고용정보원)

- 자격증은 3.6개, 토익점수는 761점 이상으로 응답

□ **(취업경로)** 신문·잡지·인터넷 공모(28.2%), 가족·친지 소개 (20.7%), 공개시험(19.5%) 등을 주로 이용, 학교(8.4%)나 기타 **직업 알선 기관(7.3%)의 역할은 취약**(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)

□ **(취업소요기간)** 최근 다소 단축**('09년 11개월 → '10년 10개월)** 되었으나, **평균 19개월만에 이직**(경활 청년층 부가조사)

* 피보험자 대비 자발적 이직자 비율: 청년층 43.4%, 30세 이상 21.0%(고용보험 DB)

□ **(지원·면접 횟수)** 평균 지원횟수는 고졸 3.1회, 대졸 6.2회이며, 면접 횟수는 고졸 2.1회, 대졸 2.4회(청년고용 실태분석 연구, '10.8)

Ⅱ. 지금까지 대책의 평가

□ **(경과)** '03년 이후 총 9회(종합대책 5회, 부문대책 4회)에 걸쳐 청년실업대책을 수립·추진

* '08년 이후에는 2회의 종합대책 및 2회의 분야별 대책(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/청년·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) 수립

□ **(평가)** 그간 청년고용대책은 **청년실업 악화 방지**를 위한 재정지원 일자리 및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,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충 등에 기여

○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막는 등 **단기적으로는 나름대로 성과**

○ 경제의 고용창출력 저하, 고학력화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, 대학 구조조정 지연 등으로 **근본적인 고용 개선효과는 미흡**

현장의 목소리

① 청년 구직자는 많지만 **기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는 소수**

② **취업취약계층**은 단순히 임금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다양한 측면의 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 주길 기대

③ 기존기업의 고용 확대는 한계가 있으므로 **창업을 활성화**

④ 눈높이만 낮추라 하지 말고 **중소기업 취업 유인과 비전**을 제시

Ⅲ. 청년 *내 일* 만들기 추진계획

< 기본방향 >

◇ "청년 *내 일* 만들기 프로젝트"는 **3가지 방향**(Three-track)으로 추진

○ **근본적**으로는 **경제성장**을 통해 **민간부문의 고용창출력**을 높여서 청년 **취업기회**를 확대

-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, 창업 활성화, 신성장동력 육성 등 지속 추진

○ 또한 **청년의 직업경쟁력** 자체를 높여 국내외에서 자생적으로 **일자리**를 **개척·유인**할 수 있도록 지원

- 대학·특성화고의 취업연계 교육 강화 및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산학현장을 개선

○ 이와 함께 **민·관 공동으로 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** 확충 노력을 병행

- 정부가 선도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확충하고, 이를 기반으로 민간도 연계·파급 일자리를 창출

◇ 이번 대책은 **1차**로 **청년**이 **그 성과**를 **체감**할 수 있도록 향후 **2년간 청년일자리 창출 규모**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

○ **학교**에서 **일터**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는데 중점

◇ 앞으로 **일하면서 배울** 수 있는 **산업현장**을 만들고,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며 고용정보와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강화하는 방안을 **추가로 발표**

1. 청년 일자리 71,000개*를 만들겠습니다.

◇ **청년이 하고 싶어 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'12년까지 71,000개 이상을 창출 ('11년까지 42,000개)**

- **(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)** 창의적 아이디어로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청년의 창업을 적극 지원
- **(공공기관의 시장변화 선도)** 신기술 개발, 신시장 개척 등 시장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선제적 증원
- **(국민 안전·특허·생활 서비스 확대)** 재난관리, 치안 등 공공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부문 일자리 확대
- **(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)** 직장 실무경험을 통해 노동시장의 연착륙을 도모
- **(해외취업 활성화)**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, 호텔서비스, IT 분야 등 해외취업 촉진
- **(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 등)**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고용협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저변 확산

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 ('12년까지 7,600여명)

□ **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 ('11년 2,000명, '12년까지 4,000명)**

○ 청년 스스로 **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**함으로써 도전정신과 열정을 펼칠 기회를 제공

○ 문화·관광, 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**아이디어**를 **공모·선정**하여 창업 지원

1단계	2단계	3단계
아이디어 공모	활동비·창업공간 등 지원, ⇒ (예비)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⇒	사회적기업으로 전환
청년층 선호 분야 개발 (지역특성 고려)	사업모델 현실화	지속가능한 일자리

- 사업비·교육·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촉진

  * 사업계획서 심사 후 팀당(평균 5명) 평균 3천만원 지원, 400팀(2천명)의 창의적 사회적기업가 육성(124억원)

  * **지자체·기업**과 연계하여 청년 사회적기업의 성공가능성 제고

※ 사례 예시

- (지자체 테마 워킹투어) 내·외국인 대상 지자체 명소 워킹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가이드로 청년 고용
- (다문화레스토랑) 다문화가정 증가추세에 맞춰 이주외국인과 공동으로 다양한 국가의 음식 및 문화를 제공하는 레스토랑 경영
- (리사이클링 퍼포먼스) 청년을 고용하여 도시환경 정비와 문화공연을 결합
  * 퍼포먼스 형태로 쓰레기 줍기, 폐고철제품을 재활용한 쓰레기통 제작 등

○ **청년 사회적기업 펀드를 조성**(100억원)*,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에 지원

  * 정부 50억원, 민간자본 50억원 유치(대기업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등)

○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1社 1사회적기업 육성

- 청년 사회적기업이 민간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대기업이 전문성·기술력 등을 지원

※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인프라 지원 유형

- (청년사회적기업가 양성) 삼성 아카데미 설립, '12년까지 청년 사회적기업가 400명 양성
- (기업특성을 반영한 설립 지원) 현대차의 「이지무브」 설립 지원, 장애인 이동기구, 재활공학기구 생산 등
- (사회적기업 육성기금) SK의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500억원 조성 등

- 청년이 창업한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 등 우수사례 홍보

□ 창업 · 창조고용 기반 조성

현장의 목소리

○ 애플의 디자이너들은 설계도를 벗어나 '전원 스위치를 없앨 수 있을까'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다.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자공학 등 다른 분야에도 능통했기 때문이다. 이것이 애플의 힘이다.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 위에 전혀 다른 관심과 공부가 입혀졌을 때 비로소 창조의 힘이 생긴다.(안철수 카이스트 석좌교수)

○ (**창조캠퍼스**) 청년 스스로 일자리 준비를 위한 창의적인 동아리 활동을 도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프로그램 지원 ('11년 10개 대학 시범실시)

* 사례: 친구들과 창의적인 사례를 수집해 블로그에 소개하다가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미래형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"아이디어 컨설턴트"로 성장

< 창조 캠퍼스 예시 >

인프라 조성		프로그램		평가
창조작업 공간	창조고용 네트워크	공동프로젝트(16주)	멘토링 및 교육	창조캠퍼스 어워드
스마트 워크와 자유로운 회의 공간	참여자 현황 및 공동프로젝트 결과를 사이버 상에 등록, 협업·공유 촉진	'범죄 예방 디자인', '자전거지도' 제작 등 창조성 구현 프로젝트 운영 (재학생 참여)	멘토그룹을 형성 공동 프로젝트 지원	우수 사례 포상·홍보

○ (**창조마을**) 문화·예술·IT 등 젊은이들이 융합형 창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·시설·장비 등 지원

- 광역단체별 1개 이상 시범사업 권고 (일자리공시제와 연계)

* 예시: 광주비엔날레 등 전시회에서 미술·예술작품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융합, 관람객 및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전시회 콘텐츠 전달

* **자치단체**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·지역상생발전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경우 전문가 컨설팅 등 제공

○ (**신성장동력분야**) 창업기업 인력 지원 **('11년 1,800명, '12년까지 3,600명)**

- **신성장동력분야의 창업기업**이 **미취업 청년을 채용**할 경우 1인당 연 720만원까지 지원('11.1월 신설, 고용보험)

* 신성장동력분야: 녹색기술산업, 첨단융합산업, 고부가서비스산업 등

* 기업(3,000개)당 2명 한도로 청년고용비율(30%)을 감안해 지원

□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

○ 고용창출 실적 또는 효과가 큰 **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** 특례보증 공급 확대

* **(신보)**특례보증 규모: ('09년) 1.5조원 → ('10년) 2.0조원 → **('11년) 4.5조원**(계획기준)

* **(기보)**'11년부터 신보와 유사한 특례보증프로그램 도입[공급규모**('11년): 1조원**]

○ **일자리 창출 효과**가 큰 **중소·벤처기업**에 투자하는 **일자리창출 펀드*** 조성

* 1천2백억원 규모[출자자: 정책금융공사(1천억), 모태펀드(100억), 한국벤처투자㈜(100억)]

- **투자 후 실제 일자리 창출실적**을 **평가**하여 **운용사**에 **인센티브 지급**

* 운용수익률이 일정수준(5%) 이상이면, 일자리창출실적(투자금액 1억원당 3명이상)에 따라 초과 수익의 10% 지급(청년고용의 경우에는 15% 지급)

○ 민간·해외투자자·정부 공동으로 **글로벌 영화 제작을 위한 펀드를 조성**해 콘텐츠 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('11년 예산 지원 400억원, '13년까지 2천억원 목표)

* 2천억원 조성시 8년간 40여편 영화 제작

2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 ('11년 6,300여명, 민간파급효과 고려시 '12년까지 7,200여명)

□ **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('11년 1,700명)**

○ 해외 원전수출, 자원개발 등 **에너지 분야**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'11년 **1,700명 증원**

- 국내외 원전건설 · 운영, UAE 원전사업 수행 등: 원자력 분야 **800명** 증원
- 광구탐사 · 개발 · 생산, 석유기업 M&A 협상 등: 해외자원개발 분야 200명 증원
- 기타 에너지 분야: 700명 증원

○ 원자력·해외자원개발 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**민간에서도 인력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**

* 원자력 분야: '12년까지 800명 채용('11년 460명)
* 해외자원 개발분야: '12년까지 70명 채용('11년 30명)

□ **출연연구기관 연구인력 확대 ('11년 1,200명)**

○ 미래 핵심기술 개발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&D 예산을 대폭 증액(8.6%), '11년 출연연구소 연구원을 늘리고(400명) 연구보조원도 추가로 증원(800명 내외)

* '10.6월 54개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9,200여명 → '11년 9,600명 수준

□ **대국민 의료서비스 확충** ('11년 1,200명)

○ 국립대 병원의 간호직 등 의료인력 1,200명 증원

□ **대외활동기관**(KOICA, KOTRA 등) **역량 강화**를 위해 **100명 증원**

□ 그 외 부가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공공기관 인력 **2,100명 채용**

○ 공공기관별 증원 내역은 추후 확정(12월중)

➡ 향후 증원되는 공공기관 인력은 반드시 **신규채용**을 통해 충원하고, **신규채용실적은 경영평가에 반영**

3 안전 · 특허 · 생활서비스 확대 ('12년까지 7,100여명)

□ **소방 · 치안인력 증원 ('11년까지 1,150명)**

○ **화재 · 자연재해 관리와 구조 · 구급활동, 치안 등 공공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**

* '10.9.21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서울 · 경기 지역은, '10.9월말 소방인력의 3교대 전환율이 58%, 29%에 불과
('10년 3교대 전환비율 목표 95%, '10.7월 전국 전환율 69%)

* '02년 대비 '09년에 112 신고건수는 121.1%, 5대 범죄 건수는 24.1% 증가했으나 지역경찰은 1.3%만 증가

○ **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**하기 위해 소방 · 치안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

- **소방공무원** 3교대 조기 전환을 위해 **'11년까지 450명**을 증원하고 '12년 이후에도 증원과 내근인력 현장배치 등을 지속 추진

- 아동 성범죄 예방, 학교폭력 근절 등 일선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종신고 지원,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**치안인력 확충('11년까지 700명)**

□ **특허 · 상표출원 심사인력 확충 ('12년까지 200명)**

○ 급증하는 특허 · 상표 · 디자인 · 국제특허출원 등의 **심사인력이 부족해 발명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연**

* 특허출원 1천건 당 심사관수(명): 한국 3.6, 일본 4.8, 미국 13.4, 유럽 31

* 싱가폴('09), 바레인('10) 등이 우리나라에 국제특허출원(Patent Cooporation Treaty) 조사 의뢰를 요청했으나, 심사인력 부족으로 거절

○ **출원인의 산업재산권이 제 때에 권리화·사업화**될 수 있도록 이공계 인력을 중심으로 **심사인력 확충**

- '11년 100명, '12년 100명 연차적으로 충원

- **탄력적인 인력운용**을 위해 **전문계약직 방식의** 충원을 주로 활용

□ 재해방지·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 채용 ('11년 1,000명)

○ 재해와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재해복구비용, 방역처리비용, 농가 보상비용 등을 **절감**하고, 비용 절감분의 일부를 활용하여 **청년 일자리도 확충**

○ 1차로 가축질병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

- 구제역·AI 등 가축질병으로 **'00년 이후 1.1조원*** **피해가 발생**

  ▪ 중국 등 주변국에서 구제역 등이 빈발하고 있어 **한층 강화된 방역대책 긴요**

  * 구제역: ('00) 15건, 3,006억원, ('02) 16건, 1,434억원, ('10) 17건, 1,588억원

  * AI: ('03~'04) 19건, 1,531억원, ('06~'07) 7건, 582억원, ('08) 33건, 3,070억원

- '11년에는 주요 질병 발생동향 및 조기진화에 중점

  ▪ 축산농가 **전화추적 및 관찰, 상황전파, 방역현장통제 보조** 등을 위한 **전담요원 배치***('11년 1,000명)

  * 농림부 산하 「가축위생 방역지원 본부」 시군출장소(41개소) 배치

○ 앞으로도 재정중립적이면서 일자리도 확대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**지속적으로 발굴**

□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대 ('11년 4,800명)

○ 고령화·핵가족화 등으로 지역별·계층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**사회서비스의 확대**가 절실

* 특수교육·심리학 등을 전공한 대졸자 등 지속가능한 전문일자리 성격

○ **장애학생** 등이 증가함에 따라 **특수교육교원**을 늘리고 건강증진·식생활 개선을 위해 **영양교원** 등도 충원

○ 교육과 예술의 연계, 체육활동 활성화를 통해 **심신이 건강한 인력**을 **양성**하고, **문화예술 혜택**을 노인·장애인 등 소외계층까지 **확대**

* 학교의 문화예술·체육교육 확대를 내용으로 '08.10월 업무협약(MOU) 체결

* 복지시설 중 예술강사 배치 시설은 1% 남짓(65,550여개 중 700여개)

일자리부문	주 요 내 용
지역사회서비스	· 아동개발, 노후생활 지원,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등 수요가 많은 10대 유망 사회서비스 · 바우처 규모를 확대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, 서비스 제공 청년일자리도 확대 (2,400명 증원: '10년 10,500명 → '11년 12,900명)
특수교육·영양 유치원 교사	·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확대, 학생 건강증진·식생활습관 교육 확대, 유아교육부담 경감 등 (370명 증원: '10년 21,280명 → '11년 21,650명)
예술분야 초·중·고등학교 전문강사	· 초·중·고교(약 5,570개)와 사회복지시설(약 1,300개소) · 국악, 연극, 영화, 무용 등 8개 분야 청년예술강사 배치 (330명 증원: '10년 4,098명 → '11년 4,428명)
스포츠분야 초등학교 전문 강사	·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체육수업부담 경감 및 체육수업 활성화 (160명 증원: '10년 1,040명 → '11년 1,200명)
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	· 문화예술 연수단원 채용,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, 방송영상 전문인력 양성 등 (40명 증원: '10년 463명 → '11년 503명)
영어회화 초·중등학교 전문강사	· 초등학교 수업시수와 중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에 따라 늘어난 영어회화 전문강사 수요 충족 · '영어를 영어로 가르치는(TEE: Teaching English in English) 인력'을 확충하여 초·중등학교에 배치 (1,500명 증원: '10년 4,080명 → '11년 5,580명)

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 ('12년까지 37,100여명)

□ **취업과 연계성이 높은 청년인턴 사업을 활성화**

○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인턴은 폐지하되, 성과가 좋은 **취업연계형 인턴은 확대** ('10년 30,000명 → '11년 33,000명)

* 12년까지 66,000명의 인턴사업으로 37,100명의 일자리 창출 (수료·취업률실적 등 감안)

■ **(중소기업 취업인턴)** 중견기업 취업인턴 5천명을 포함, 총 **3만명으로 확대,** 문화·관광 등으로 업종 다양화

■ **(창업·창직인턴)** '1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(5백명) → **3천명으로 확대**

* 창업 희망 청년이 선도 창업가, 명인·명장 등으로부터 이론학습 및 현장실습을 통해 노하우 전수

□ 중소기업 인턴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여 대형화를 유도하고 기관간 연계도 강화

5 해외취업 활성화 ('12년까지 12,000여명)

□ 세계경제 회복, 우리 청년층의 어학 등 글로벌 경쟁력 상승 등 **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해외취업 촉진**

○ 해외취업·인턴사업 분야를 다양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

■ **(해외취업 지원사업)** '12년까지 청년층의 관심이 높은 항공승무원, 호텔서비스, IT분야 등에 10,700명 지원

* 취업알선 1,100, 취업연수 9,000, 해외건설 600

■ **(해외인턴사업) 교과부가 통합·운영하고 규모도 확대**

* '12년까지 5,700명에게 해외인턴 기회를 제공, 1,150명 취업

* 교·사대 졸업자 해외진출, 해외진출 중소기업·대기업 해외인턴, 한식세계화를 위한 외식기업 해외인턴 등

□ 대외무상 원조사업(ODA) 참여 기업, KOICA 현지사무소, KOTRA 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 신규 지원 ('12년까지 1,000명을 지원하여 130명 취업)

6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

□ **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**을 위한 고용협력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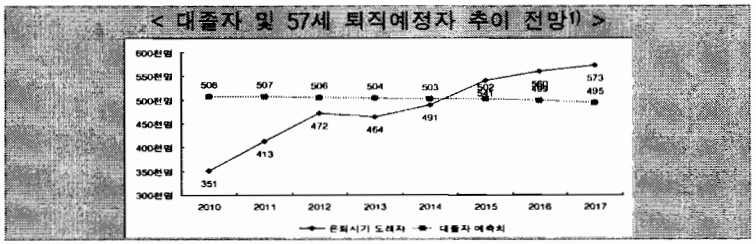
○ 대·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인재육성 파트너십 확립,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

* 주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청년층이 원활하게 취업·능력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(전경련 주관 대기업-협력업체 채용박람회, 11월 예정)

□ **세대간 일자리 나누기** 모델 확산

○ **(기본방향)** 대졸 인력이 정년 퇴직자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~4년간 **기업에서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**

< 대졸자 및 57세 퇴직예정자 추이 전망[1] >



○ **(추진방안)** 재직자 직업훈련, 실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생기는 빈 일자리만큼 청년을 채용

* 예시: 능력개발(유급휴가훈련), 일가정 양립(유연근로), 고용·임금개선 (실근로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)

* 청년고용의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.5배 인정

- 민간부문: 경제단체와 100대 기업 등의 자율실천운동 전개

* 고용보험 DB와 연계하여 업종별, 부문별, 기업별 일자리 창출 성과 분석, 우수기업 포상에 반영

- 공공부문: 청년채용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결과 공표

□ **"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"**(위원장: 고용부장관)를 중심으로 민간·공공 부문 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발전방안 강구

1) 57세 퇴직예정자는 장래인구추계 해당연령에 55~59세 고용률 67.4%('10.7월 현재)를 곱하여 추정, 대졸자는 국가인력수급전망의 대졸 취업자 전망에 취업비율 78.4%('00~'09년 평균)로 나눈 값으로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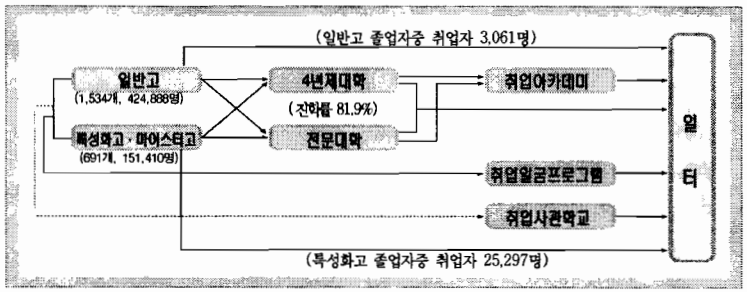
2.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.

현장의 목소리

○ 학교공부와 취업현실은 생각과 달랐음. 몇 번의 입사지원 실패 후 학교 취업 지원관으로부터 큰 도움 (대졸 구직자)

○ 고등학교 중퇴자 등 기초학업능력, 직업능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수강하기 알맞은 훈련과정이 부족.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절실 (위기청소년 상담원)

□ (기본방향) 산업수요에 맞는 학교교육과 직업훈련으로 '일 잘하는 청년일꾼' 양성



□ 대학 스스로 취업 책임을 다하는 여건 조성

○ **(산업계 관점으로 대학평가제도 개선)** 평가대상 학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, 평가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

- **업종별협회** 또는 **인적자원협의체**(SC)가 **분야별 평가**를 주도하고 **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강구**

○ **(대학의 취업률 공개 내실화)** 취업통계조사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(3~6개월)의 유지취업률 별도 조사

- '11년 통계부터 단기(3개월 이내) 교내 취업자를 취업통계에서 제외하여 취업률 부풀리기 예방

□ 대학졸업(예정)자를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로 양성

○ **(취업아카데미 개설)** 대학생 및 졸업생 등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**수요자(기업, 산업체)** 주도로 체계적 과정을 마련, 청년과 일자리 연계

- **이론과 실습 융합과정**을 통해 **기본·직무역량**을 학습한 뒤, 인턴 등을 거쳐 취업까지 연계('11년 50개소 1만명 참여, 7천명 취업 목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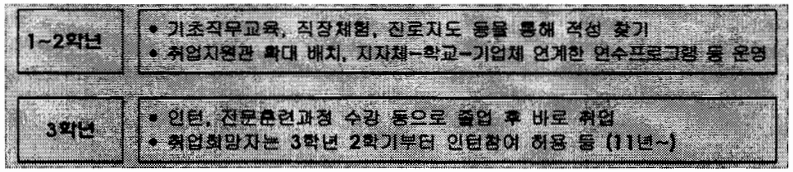
구분	현행 산학연계 프로그램	취업아카데미 개설
대상 운영 참여 중점	• 특성화고 중심 • 대학이 주관, 기업은 참여 • 재학생 위주 • 해당기업에 필요한 직무 (기술기능)	• 전문대학·대학으로 확대 • 기업, 사업주 단체, 대학으로 다변화 • 재학생+졸업생 포함 • 기업수요 충족, 지역·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(이론실무 교육 및 현장체험 종합)

□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

○ **(취업우수학교 발굴·확산) 취업률 및 취업지원 체제 등이 우수한 특성화고를 "취업선도학교"**로 지정·운영

* 他 특성화고에 대한 **컨설팅 및 연수 추진** ('11년 교육청별 1~2개교 선정, 교당 2억원, 총 60억원)

○ **(취업일굼 프로그램)** 고교 졸업만으로도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「직업교육-진로지도-현장훈련」 연계 강화



- **(취업 지원)** 마지막 학기 재학생 인턴 참여(1만명)를 허용하여 졸업과 동시에 취업 촉진

  * 삼성전자: '11년도 공고 졸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120명 채용 예정

○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기간 **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** 조성

- **(병역특례 지원)** '12년 폐지 예정인 **「산업기능요원제도」**를 **16년까지 연장** 검토

  *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자는 기업규모 및 업종 구분 없이 4년간 입영 연기 ('12.1~), 그 성과를 보아가며 인문계고 졸업자에게 확대적용 검토

- **(근로경험의 학점인정)** 산업현장 전문분야 근로경험을 평가하여 학점 또는 자격과 연계하는 제도 검토

  * 예: 특성화고 졸업생이 일정기간 중소기업 근무 후 또는 근무 중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수강시 근무기간을 학점에 가산

□ '학교 밖 위기 청소년'의 재도전 지원

○ **(취업사관학교 운영)** **학교 밖 위기청소년**을 대상으로 특성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, **건강한 직업인으로 육성**

  * '11년 100명 시범실시, 성과평가 후 단계적으로 확대

- 개인별 인성교육·진로지도·취업알선 및 검정고시 지원 병행, 훈련기간 중 생계지원을 위한 '자립수당(월30만원)' 지급

◇ 이번 「**청년 *내 일* 만들기**」 제1차 프로젝트는

○ 현 시점에서 **청년층에게** 분야별로 **구체적인 일자리를 제시하고**

○ **산업현장**이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두었음

◇ 이상 보고드린 대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**민관 협력**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음

◇ 아울러, **제2차 프로젝트**에서는 **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**를 늘리고, **중소기업의 고용환경**을 **개선**하는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

⇨ 이를 통해 청년층이 우리사회의 중추적 인재로 커나가고 더 많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
Ⅳ. 추진일정

추진과제	추진일정 '10	'11	'12	소관부처
1. 청년 일자리 71,000개*를 만들겠습니다.				
1 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				
청년 사회적기업가 육성	→			고용노동부
청년 사회적기업 펀드	→		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
창조캠퍼스	→			고용노동부
창조마을	→			고용노동부
2 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				
공공기관 인력증원 - 원자력 등 에너지 - 출연연구기관 - 대국민 의료서비스 - 대외활동기관(KOICA, KOTRA 등) - 기타	→			기획재정부
3 안전 · 특허 · 생활서비스 확대				
소방 · 치안인력 증원	→			행정안전부
특허 · 상표출원 심사인력 증원	→			행정안전부
재해방지 · 질병방역 모니터링 요원	→			농림수산식품부
지역사회서비스	→			보건복지부
특수교육 영양, 유치원 교사	→			교육과학기술부
초중고 청년 예술강사	→			문화관광체육부
초등학교 스포츠강사	→			문화관광체육부
문화예술연수단원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방송영상 전문인력	→			문화관광체육부
영어회화 전문강사	→			교육과학기술부

추진과제	추진일정 '10	'11	'12	소관부처
4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				
중소기업 취업인턴 확대	→			고용노동부
창업 · 창직인턴 확대	→			고용노동부
5 해외취업 활성화				
해외취업 지원사업 (해외건설, 취업알선, 취업연수)	→			고용노동부
해외인턴 운영	→			교육과학기술부
해외봉사 운영	→			외교통상부
6 대 ·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확산				
세대간 일자리 나누기 모델 확산 등	→			고용노동부
2.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혀겠습니다				
1 대학의 취업 책임 강화				
산업계 관점 대학평가	→			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
대학의 취업률 공표 내실화	→			교육과학기술부
2 대학졸업(예정)자를 산업수요에 맞는 현장형 인재로 양성				
취업아카데미 개설	→			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
3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촉진				
취업중심 개편	→			교육과학기술부
취업 일굼 프로그램	→			고용부,교과부
병역특례 지원	→			국방부 · 병무청
근로경험 학점인정	→			교육과학기술부
4 학교밖 위기 청소년의 재도전 지원				
취업사관학교 개설	→			고용노동부

붙임1 「청년 *내 일* 만들기」에 따른 신규 일자리 창출규모

구분		대책 주요내용	신규 일자리(명)	모집·채용 시한	비고
1.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	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	문화,관광,예술 등 청년층 선호가 높은 분야에서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공모·선정	**4,000** ('11: 2,000)	'12	400팀×5명×2년
	신성장 동력분야	창업기업이 미취업 청년 채용시 지원제도 신설	**3,600** ('11: 1,800)	'12	3,000개×2명×30% (청년비율)×2년
2. 사회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	공공기관	해외원전수출, 자원개발 등	**1,700**	'11	
		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 확대	**1,200**	'11	
		국립대 병원 의료진 확대	**1,200**	'11	
		대외활동기관 인력 증원	**100**	'11	
		그 외 부가가치 창출 공공기관 증원	**2,100**	'11	
	민간	해외원전 수출자원개발 분야에서 공공기관과 연계되어 채용확대	**870** ('11: 490)	'12	
3. 안전·특허 생활 서비스 확대	소방인력 증원	3교대 정착을 통한 소방서비스 개선 (지방재정)	**450**	'11	
	치안인력 증원	사회적 수요가 높은 치안 관련 인원 확충	**700**	'11	
	특허 심사 인력 증원	심사인력을 확충하여 심사기간을 단축 (주로 이공계 석·박사로 충원)	**200** ('11: 100)	'12	
	모니터링 요원	구제역 예방을 위해 출입기록 관리, 이상징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(발병횟수 축소, 발병시 제한된 살처분 → 예산 절감)	**1,000**	'11	

구분		대책 주요내용	신규 일자리(명)	모집·채용 시한	비고
	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	아동개발, 건강, 보육 등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바우처를 통하여 시장친화적 일자리를 제공 (청년채용률 65%)	**2,400**	'11	('10)10,500→ ('11)12,900
	특수교육, 영양 유치원 교사	장애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, 학생 건강증진, 식생활 습관 교육 확대	**370**	'11	
	문화예술 청년 일자리	학교/사회복지시설에 국악, 연극, 영화, 무용, 디자인 등 8개 분야 청년 예술강사 파견	**330**	'11	('10)4,098(4,710×실적87%)→ ('11)4,428 (4,920×목표90%)
		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확대	**160**	'11	('10)1,040→('11)1,200 (청년비율 80% 감안)
		문화예술 연수단원 및 문화산업 청년리더 양성	**40**	'11	
	영어회화 전문강사	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여 초등학교에 배치 (지방교육재정 활용)	**1,500**	'11	('10)4,080→('11) 5,580 (청년비율 80% 감안)
4. 인턴과 안정적 일자리 연계	취업연계형 인턴	내년도 중소기업인턴을 금년과 동일하게 유지(25천명), 중견기업 인턴 신규도입(5천명), 창업·창직인턴 확대(3천명)	**37,100*** ('11: 18,550)	'12	3.3만명×67%(수료율)×84% (채용률)×2년
5. 해외 취업 활성화	해외취업·인턴지원	글로벌리더를 알선·연수시켜 해외취업을 추진	**10,700*** ('11: 5,170)	'12	
		플랜트, 무역, 국제기구, 외식 등 분야의 현지기업에 인턴으로 경험을 습득하여 취업유도	**1,150*** ('11: 570)	'12	2,874명×20% (채용률)×2년
		대외무상원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KOICA 현지사무소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취업 유도	**80*** ('11: 40)	'12	400명×10% (채용률)×2년
		KOTRA 지사화 사업에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취업유도	**50** ('11: 30)	'12	100x25%(취업률) x2년
총 계			**71,000** ('11: 42,000)	'12	

* 일자리 인원수는 전체 사업대상자 중 취업예상자를 별도로 추정한 숫자임
* '12년도까지의 일자리 규모는 '12년도 사업예산이 '11년과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산출 (공기업과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차별 계획이 없는 경우 '11년까지만 제시)

붙임2 **신규 일자리 창출 세부일정**

추진과제	추진일정	비고
1. 청년 일자리 71,000개+ 만들겠습니다.		
1 **청년의 창조적 도전 적극 지원**		
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	○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계획 마련('10.11) ○ 청년, 사회적기업, 지원기관 등 대상 공청회('10.10.27) ○ 위탁기관 선정('11.1) 및 참여자 선정('11.3)	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 (2100-7171) www.moel.go.kr
창조캠퍼스	○ '11년도 창조캠퍼스 사업계획 수립('10.12) ○ 대학 공모 및 선정('11.2)	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(2110-7178) www.moel.go.kr
창조마을	○ '11년 창조마을 사업운영방안 마련('10.12) ○ 자치단체 공모 및 선정('11.2)	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(2110-7178) www.moel.go.kr
신성장동력분야 창업기업 인력지원	○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및 지침마련('10.12) ○ 사업 개시('11.1~)	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과 (6902-8169) www.moel.go.kr
2 **시장변화를 이끄는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**		
공공기관 인력증원	○ 증원규모 확정('10.12) ○ 채용 공고 및 배치('11.1~3)	기획재정부 정책총괄과 (2150-5513) www.mosf.go.kr
3 **안전·특허·생활서비스 확대**		
소방인력 증원	○ 지방조례개정('10.12~'11.4), 지역별 상이 ○ 채용공고('10.12~'11.4), 지역별 상이 - 서울, 대구, 울산, 경북	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 (2100-3762) www.mopas.go.kr
치안인력 증원	○ '11년 신규채용계획 수립('10.12) ○ 채용공고 일정 공고('10.12) ○ 신규인력 채용(연중)	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(2100-3676) www.police.go.kr
특허심사인력 증원	○ 직제개정 및 채용공고('11.1) ○ 인력채용('11.3)	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(2100-3504) www.mopas.go.kr

추진과제	추진일정	비고
구제역모니터링요원 채용	○ 채용 세부계획 수립 및 확정('10.12) ○ 채용공고('11.1) ○ 시도별 채용절차 진행 및 교육('11.1~2)	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(500-2082) www.mifaff.go.kr
지역서비스투자사업	○ 신규사업 공모('10.12) ○ 사업 선정('11.1) ○ 지자체 및 제공기관 교육('11.3)	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(2023-8143) www.mw.go.kr
문화예술 청년일자리	○ 예술강사 모집공고 및 배치('10.10~'11.1) ○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모집공고 및 선발('11.1) ○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채용공고('11.1) ○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공고('11.2~3) ○ 방송영상 전문인력 교육생 선발('11.2~3)	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(3704-9593) www.mcst.go.kr
영어회화 전문강사	○ 세부계획 수립('10.10) ○ 시·도교육청별 모집 공고('10.12.6) ○ 최종합격자 발표('11.2.8)	교육과학기술부 영어교육강화팀 (2100-6174) www.mest.go.kr
4 **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 강화**		
인턴과 안정적 일자리의 연계	○ '11년도 사업계획 수립('10.12) ○ '11년도 사업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('11.1) ○ 참여자 모집(연중)	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(2110-7178) www.moel.go.kr
5 **해외취업 활성화**		
글로벌 취업지원	○ '11년도 연수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('10.12) ○ 연수생 모집 및 연수 실시(연중) ○ 해외취업 알선 실시(연중)	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(6902-8255) www.worldjob.or.kr
해외진출 외식기업 청년인턴	○ 외식기업 수요조사('10.12) ○ 인턴채용공고('11.1) ○ 인턴파견 및 관리('11.4~)	농림수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팀 (500-1964) www.at.or.kr
KOICA ODA사업 관련 인턴채용	○ 세부 추진계획 수립('11.3) ○ 채용공고('11.3) ○ 인턴선발 및 파견 전 교육('11.4~) ○ 인턴파견('11.9)	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(2100-8355) www.koica.or.kr
KOTRA 지사화 인턴사업	○ 세부사업 계획수립('10.12) ○ 참가인턴 및 업체 선정('11.3) ○ 지사화업체 연수 및 장려금 지급('11.4~)	지식경제부 무역진흥과 (2110-5323) www.kotra.or.kr

추진과제	추진일정	비고
2. 학교에서 일터로 이어지는 길을 넓히겠습니다.		
산업계 관점의 대학평가 개선	○ 평가대상 산업분야 및 학과 선정('11.3) ○ 산업계 니즈 분석('11.6) ○ 평가대상 대학 선정 및 자료수집('11.9) ○ 대학 평가 및 평가결과 발표('11.12)	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(2100-6322) www.mest.go.kr
대학취업률 공표 내실화	○ 대학취업률 조사대상자 확정('11.3~4) ○ 대학취업률 조사('11.6) ○ 대학취업률 발표('11.9)	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분석과 (2100-6319) www.mest.go.kr
청년 취업아카데미 개설	○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설명회 개최('10.12) ○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('11.1) ○ 참여자 모집 및 아카데미 운영(연중)	고용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(2110-7181) www.moel.go.kr
취업사관학교 운영	○ 세부 추진계획 수립('10.12) ○ 훈련기관 공모 및 선정('11.2) ○ 훈련생 모집 및 취업사관학교 운영(연중)	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(2110-7253) www.moel.go.kr

※ 향후 신규일자리 창출 공고 및 세부일정 등 정보는 **잡영**(jobyoung.work.or.kr) 홈페이지에서 통합 관리 계획